

# 남북이산가족의 실향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Losing a Hometown among Korea's Divided Families

인하대학교 소비자 아동학전공

부 교수 양 성 은\*\*

Consumer & Child Studies Major, Inha Univ.

Associate Professor : Yang, Sung-Eun

---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chieve an understanding of the experiences of divided families in South Korea. The study adopted a qualitative method based on the interpretive science paradigm. The participants were 14 elderly people who came from North Korea around 1950 and identified as belonging to the first generation of divided families.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were carried out, focusing on what divided families experienced after leaving their hometown, how these experiences affected their meaning-making about their homecoming, and how the divided family community has changed. The result of them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first generation of divided families identified themselves as "people who lost their hometown." Losing their hometown implied multiple losses, including their family members, socioeconomic status, and psychological support systems. The participants explained the process of their settlement and adaptation to South Korea based on the cohesion of the divided family community. However, they anticipated that the divided family community would fade away because of the aging of the first generation, the indifference of the second generation, and the frustration that existed about the reunion of the divided family members. The participants showed a realistic view on returning to their hometown after the reunification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

▲주요어(Key Words) : 이산가족(divided families), 질적연구(qualitative study), 실향민 사회(divided family community)

### I. 서 론

한반도는 6.25전쟁이 휴전된 1953년부터 현재까지 약 60년간의 분단 상태에 놓여 있다. 민족의 분단으로 인한 가장 큰 비극은 남북이산가족이다. 이산가족이라 함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통일부훈령 제334호

2조, 2003)”를 말한다. 이들은 분단이라는 거시체계적 사건에 의해 가족이라는 미시적 관계를 빼앗긴 당사자들이다. 가족관계의 단절을 직접 겪은 이산1세대와 이들의 상실감을 전수받은 이산2세대는 한반도라는 맥락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가족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산가족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아직까지 다수의 이산가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 북한에 이산가족이 있는 인구는 715,968명으로 전체 국민의 1.5%에 달한다(통계청, 2006). 분단 상태가 반세기 넘게 지속됨에 따라 이산1세대가 사망하면서 수적인 감소가 있지만, 아직까지 간파할 수 없는 규모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8-331-C00289).

\*\* 주저자 · 교신저자 : 양성은 (E-mail : syang@inha.ac.kr)

이산2세대와 3세대를 포함한다면 이산가족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이산가족1세대에 대한 연구는 이들의 고통화를 고려할 때 시급성이 요구된다. 이들이 고향을 떠나게 된 상황, 남한에 정착한 과정, 이산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단절 등에 대한 실존적 증언을 더 늦기 전에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산1세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산2세대와 3세대로 이어지는 이산가족 공동체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담론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산가족을 연구해야하는 또 다른 이유는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이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가족주의(familism)를 강조하는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혈연은 한국인의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어왔다. 혈연은 정치적 갈등, 군사적 대립, 경제적 실리를 뛰어넘는 강한 결속력을 지닌다. 통일이 "8천만 한민족이 이루어야 할 역사적 과업"임을 인정한다면, 혈연으로 이어진 이산가족이야말로 분단을 극복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산가족은 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통일 후 분단경험의 이질성을 해소하는데도 중심이 될 것이다(최연실, 2007).

이처럼 이산가족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축적된 문헌에서 이들에 대한 가족학 담론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한국 분단에 관한 논의는 정치, 경제, 안보분야에서 통일과 관련된 이데올로기의 갈등, 정치체제의 구조적 대립, 남북한 경제 교류 활성화, 핵문제 해결 등이 주가 되어왔다.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도 이러한 거시적 관점에서 다루어지면서 인도적 차원이 강조되었다. 문제는 민족의 통일이라는 당위성에서 출발한 거시적 논의가 미시적 차원의 이산가족 내부 역동을 간과한다는 점이다. 이산가족 공동체의 역동을 미시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가족현상을 분석하는 동시에 개인 및 가족원들의 상호작용에도 초점을 두는 가족학적 관점이 유용하다(정현숙·유계숙, 2001). 가족학적 관점이야말로 타의에 의해 정치적으로 범주화되는 이산가족의 모습이 아닌 이산가족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이산 경험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세대가 달라짐에 따라 이산가족의 미래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등의 본질적 문제를 탐색하게 한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확대된 남북교류나 이산가족 상봉의 영향을 고려할 때 이산가족들의 실황 경험, 남한 정착 과정, 그리고 귀향에 대한 의미를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는 거시체계적 관점이 아니라 이산가족 내부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관점의 이산가족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 II. 선행연구고찰

이산가족에 대한 관련 문헌은 몇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정부기관이나 유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자료들이 있다. 통일부,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대한적십자사, 통일부인허가법인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이 발표하는 통일, 북한, 남북교류 관련 정보들은 거시체계 안에서 이산가족이 처한 위치를 가늠하게 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통일부에서 해마다 발행하는 "통일백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통일백서가 시사하듯 이산가족의 문제는 통일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남북 인도분야 협력"의 일부일 뿐이며, 가시적인 상봉행사에 비중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자료로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행한 "이산가족백서(대한적십자사, 1976, 1977, 1986)"나 "이산가족찾기 60년(대한적십자사, 2005)" 등이 있고,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서도 이산가족 교류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기관 및 유관단체가 발행하는 보고서의 통계적 수치나 정책 중심의 기술적 정보만으로는 이산가족을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산가족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정치학, 법학, 북한학 등의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정치학 관점에서 이산가족에 대한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신윤, 2001; 최대석, 1999), 북한학 분야에서 이산가족 교류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김달순, 2006; 송상범, 2004), 법률적 관점에서 이산가족의 호적정정, 상속관계, 증혼문제 등을 다룬 연구들(소재선, 2001; 이은정, 2001; 조미경, 2002)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통일의 당위성을 역설하기 위한 정치적 상징이나 한반도의 긴장관계를 해소하려는 일종의 수단으로서 이산가족 문제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혹은 통일 후를 대비하는 법률적 논의에 집중하면서 현재 이산가족이 겪는 체험을 경청하는 데 관심이 부족하다.

이산가족의 경험에 직접 초점을 둔 연구는 많지 않은데,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이산의 경험을 분석한 김명혜(1988)의 사회학적 논문이 시사점을 준 바 있다. 이후 이성희와 김태현(1993)이 역시 가족주의를 이론적 틀로 하여 이산가족의 사회적 지원망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산1세대의 남한 정착과정을 경제적, 사회적 자본과 연결해 분석한 논문들(김귀옥, 1999; 김성은, 1995)도 뒤를 이었다. 논문 발표 시점이 다소 경과되었지만 이들은 근대화, 민주화, 도시화 등의 사회경제적 변혁 속에서 이산1세대가 월남인으로서 어떻게 적응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실항민으로서 남한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이산1세대는 전통적인 핵가족 및 친인척체계를 아우르는 가족유대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공통점을 보였다. 특히 초기에는 월남인 정착촌에 유입되거나 이북 출신끼리

결혼하는 등으로 결속을 강화했으며, 동향인(同鄉人)을 중심으로 한 연고주의는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논문들은 분단이 장기화 되면서 이산1세대가 지닌 월남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용해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측면에서 월남인의 정체성을 강조해야한다는 주장(엄명용, 2000)도 제기되었다.

선행연구들을 고찰하면, 가족학 분야에서 이산가족에 대한 2000년대 이후의 연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산가족이 가족학의 연구주제에서 소외된 이유는 이들이 지나치게 정치적 쟁점화 되어서이기도 하고,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긴장감을 유발해서이기도 하며, 복잡한 가족법상의 해석이 요구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산가족에 대한 가족학적 접근으로서 최연실(2007)의 논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산1세대의 적응과정을 분석한 연구결과는 이들이 경험한 회한(悔恨)의 정서를 부각시켰는데, 이는 죄책감, 좌절감, 분노감, 피해의식 등이 복합된 감정이다. 또한 현재의 가족이야말로 이산1세대의 심리적 근거가 되며, 이산가족이 비이산가족에 비해 가족결속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산1세대의 과거 경험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서 앞으로 이산가족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시사할 수 있는 추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분단 60여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이산가족들이 고향을 떠나 겪은 경험은 무엇이고, 이산1세대는 실향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며, 이산2세대로 넘어가면서 이산가족 공동체에 어떠한 변화를 예상하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피상적인 통계적 수치에 의존함으로써 야기되었던 이산가족에 대한 오해를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극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III. 연구방법

#### 1.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는 인식론적 근거

이산가족의 정체성에 관한 가족학 관점의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제한적이며, 이론적 모델은 미처 구축되지 못하였다. 특정 연구주제에 관해 알려진 정보가 부족한 경우 탐색적 접근을 통한 심층적 이해(verstehen)가 우선되어야한다.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는 해석주의적(interpretive) 인식론을 바탕으로 한 질적연구방법이 유용하다(Padgett, 1998).

질적연구방법의 근간에 있는 해석학적 인식론은 “사회현상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제도현상이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규범의 맥락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신경림 등, 2004: 66)”는 명제를 출발점으로 한다. 즉, 자연과학을 지배하는 실증주의적 인식론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에 적용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또한, 협소하게 조작된 변수들 간

의 관계를 검증하는 대신 발견의 논리를 지향하는 귀납적 분석을 따른다. 조작이나 통제 대신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현상을 이해하는데 목표를 두며, 그 현상이 발생하는 맥락을 중요시한다. 이산가족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처한 정치적 맥락, 문화적 맥락, 사회적 맥락, 가족적 맥락 등 다차원적 맥락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질적연구는 “살아 있는 경험(lived experiences, Van Manen, 1990: 35)”을 얻기 위해 실제로 이를 체험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그들의 삶으로부터 어떤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는 경우 적절하다.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산가족에 대한 연구들이 거시적 관점에 편향된 점을 비판하면서, 이들의 미시적 경험을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질적연구를 통해 이산가족이 자신의 가족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를 명료화함으로써 이면에 감추어진 정서, 신념, 동기, 가치관 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대상은 이산가족1세대이다. 이산1세대는 “1953. 7. 27(휴전) 이전 북한지역에서 월남한 자와 남한지역에서 남북(월북)된 자의 당시 가족(통일부훈령 제334호 2조, 2003)”으로 정의된다. 연구참여자 모집하기 위해 이산1세대를 정의하는 준거에 따라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http://reunion.unikorea.go.kr/>)』의 “열린 마당” 및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http://www.ibuk5do.go.kr/index.asp>)』의 “이산가족 지원코너: 대동강편지” 웹사이트에 연구참여자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다. 동시에 이산가족 유관기관인 『이북5도청사무국』 및 『일천만이산가족 위원회』에 공식적인 연구 협조를 요청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 대상 중 이산1세대 준거에 적합한 참여자 14명(남 9명, 여 5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질적연구의 참여자 규모에 대해 Creswell(1998)은 “2시간 이상의 심층면접을 할 경우 10명 정도면 적절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면접이 실시된 시점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연령 범위는 73세-88세였다. 연구참여자의 월남 시점은 1950년이 7명, 1951년이 5명, 1948년이 1명, 1947년이 1명이었다. 이들의 고향은 황해도가 12명, 함경북도가 1명, 함경남도가 1명이었다. 연구참여자들 모두 이남에서 결혼을 하여 자녀를 출산했으며, 남성 연구참여자 1명(# 04)과 여성 연구참여자 5명은 배우자를 사별한 상태였다. 고령으로 인해 현재 직업을 가진 연구

&lt;표 1&gt;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코 드	성 별	출생연도(년)	이북 거주 이산가족원	과거 직업
# 1	남	1931	부, 모, 형제, 친인척	군인 → 건설회사 관리직
# 2	남	1938	친인척	무응답
# 3	남	1934	부, 모, 형제, 친인척	군인 → 자영업
# 4	남	1924	아내, 딸, 부, 모, 친인척	공무원 → 자영업
# 5	남	1927	친인척	교사 → 공무원
# 6	남	1936	부, 친인척	공무원
# 7	남	1933	모, 형제, 친인척	군인 → 일용직
# 8	남	1936	친인척	군인 → 유치원 운영
# 9	남	1928	부, 모, 친인척	교사 → 공무원
# 10	여	1931	모, 형제, 친인척	주부
# 11	여	1929	친인척	교사 → 회사원
# 12	여	1927	부, 형제, 친인척	교사 → 주부
# 13	여	1921	부, 모, 친인척	자영업
# 14	여	1931	친인척	교사 → 자영업

참여자는 없었으며, 이들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하층으로 평가하였다. 연구참여자 14명중 상봉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 3명이고, 나머지 11명은 모두 상봉을 신청하였다. 상봉신청자 중 1명(# 04)은 대한적십자를 통한 상봉에 성공하였고, 또 다른 1명(# 03)은 중국브로커를 통한 비공식적 상봉을 하였다.

### 3.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이산가족1세대를 개별심층면접(individual in-depth interview)하였다. 이산1세대가 고향인 점을 감안할 때, 개방적이고 비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개별심층면접의 내용은 고향을 떠나게 된 과정, 남한에 정착한 경험, 다른 이산가족들과의 교류, 북한 가족과의 재상봉에 대한 기대, 통일에 대한 태도, 이산가족2세대에 대한 관점, 이산가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주관적 정의 등으로 이루어졌다. 개별심층면접에 소요된 평균시간은 약 2시간이었다. 각각의 면접은 녹음된 후 전사되었다.

### 4. 자료분석방법

이산1세대를 대상으로 한 개별심층면접 자료는 중심주제 분석법(theme analysis)에 의해 분석되었다. 중심주제분석법은 특정 현상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태도, 개념, 가치관 등을 도출하여 중심 주제를 발견하고 조직화하는 질적분석 방법이다(Van Manen, 1990: 78). 연구참여자 각각의 사례에서 의미단위를 찾아내는 사례내 분석(within-case analysis)을 먼저 실시한 후, 전체 연구참여자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사례간 분석(cross-case analysis)을 실시하

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산1세대의 정체성과 경험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 5. 연구과정의 검증

양적연구가 신뢰도(reliability)나 타당도(validity)를 강조하는 반면 질적연구를 평가하는 준거로는 진실성(veracity), 적용가능성(transferability), 신뢰성(dependability), 확증가능성(confirmability) 등이 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이 이러한 준거를 충족시키기 위해 몇 가지 검증전략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자는 본 면접에 앞서 다양한 이산가족 행사에 참여하면서 연구참여자들과의 라포 형성에 노력하였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연구자를 신뢰하면서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면접에 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아래 인용문과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연구참여자들의 면접에 대한 진실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내가 품었던 거를, 응어리진 걸 대화로 토로해 놓으니까 좋네. 실컷 울고 싶고, 토해놓고 싶은 거를 얘기해서 좋네. (# 01)

둘째, 자료수집 단계부터 수시로 동료연구자로부터 피드백(peer debriefing)을 받아 연구자의 오류가능성을 감소시켰다. 셋째, 잠정적 이론모델이 도출된 후 이를 통해 설명되지 않는 예외사례에 주목해 이론모델을 재검점하는 반증사례분석(analysis of disconfirming observations)을 실시하였다. 넷째, 일부 연구참여자들에게 분석결과를 확인(member checking)하도록 하여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해석의 편향성을 감소시켰다.

IV. 연구결과

Morse(2006: 1163)는 질적연구에서 자료분석의 결과로 도출된 잠정적 이론의 구조(the structure of a proposed theory)를 설명하는데 도식화가 효율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도 연구결과를 함축적으로 요약하면서 중심주제들 간의 논리적 연계를 보여주기 위해 <그림 1>을 제시하였다. <그림 1>은 이산1세대가 고향을 떠난 후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된 실향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한다. 이들은 불가피하게 남한에 정착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고, 실향민이라는 자각을 갖고 서로 결속한다. 실향민 사회의 응집력은 이산1세대의 남한 정착에 핵심 기반이 되었으나, 점차 이산1세대의 고령화,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좌절, 실향민 공동체 내 다양성의 증가 등을 통해 변화를 겪는다. 결국 이산가족1세대는 통일에 대한 기대를 수정하며, 귀향에 대한 재개념화를 하게 된다.

1. 실향의 의미

이산1세대는 스스로를 “실향민”으로 지칭하였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실향민이란 “고향을 잃고 타향에서 지내는 백성”을 말한다. 반면, 이산가족이란 “남북 분단 따위의 사정으로 이리저리 흩어져서 서로 소식을 모르는 가족”을 말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단순히 가족원과의 이별만을 의미하는 이산가족이라는 명칭 대신 보다 포괄적 개념을 지닌 실향민이라는 용어를 선호하였다. 이산1세대에게 고향이란 주거와 토지를 포함한 안정적 경제적 기반 하에 직계 및 확대가족으로 구성된 혈연적 지지집단이 있고, 심리적으로 행복했던 시기를 의미하였다. 이처럼 고향에 대한 미화(美化)가 큰 만큼 실향이 갖는 의미도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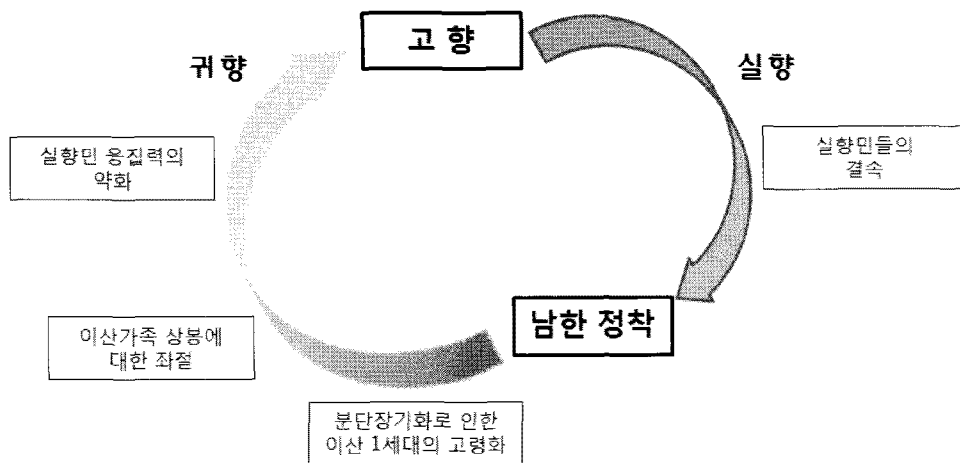
이들에게 실향이란 가족원의 상실은 물론이고 사회경제적 지위의 박탈, 심리적 지지체계의 붕괴, 유년기의 조기 중단 등 다양한 상실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들은 “거기[고향]에 있는 내 땅과 집을 버리고, 가족들을 두고, 이북에서 맨 몸으로 피난을 나와 고생”한 경험을 회고하였고, 고향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과 귀향에 대한 간절함을 표현하였다.

나는 고향에서 정말 고생을 안 하고 살았어. 피난 나와서 고생했지... 우리 시대 사람들한테 고향은 부모 같고, 어머니 품안 같고, 어머니 치마폭 같은 거지. 고향에 가는 날을 한시도 잊은 날이 없어. (# 01)

통일되면 마냥 좋죠. 가봐야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도 고향 산천이라는 게... 내가 소학교 다닐 때 다니던 길, 우리 집 뒤의 울타리, 토담을 쌓은 거... 향수병에 젖어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가지도 못하는 데를 자꾸 연상하고 머리에 떠올리고 술만 먹다가 죽는 거예요. 너무 향수에 젖어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전부 불쌍한 거죠. (# 09)

2. 실향민으로 살아가기

이산1세대 실향민들은 피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남한에 성공적으로 정착한다. 실향민 사회의 결속력은 이들의 남한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분단장기화로 인한 이산1세대의 노화와 사망은 실향민 사회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한다. 특히 실향민 사회의 구성원들이 성별과 세대에 따라 다양화되면서 이들의 응집력은 약화된다. 한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반복된 좌절은 이산1세대의 가족정체성에 변화를 초래한다.



<그림 1> 이산1세대의 실향, 남한 정착 과정, 귀향에 대한 의미 변화 모델

1) 실향민들의 결속을 통해 남한에 성공적으로 정착  
 이산1세대가 남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실향민들의 결속력이다. 실향민들은 1962년 제정된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이 2010년에 개정되기까지 “월남 이북5도민”으로서 법률적 지위를 유지해왔다. 이들은 본 법률에 따라 이북5도 도지사, 이북5도위원회, 이북5도민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공식적 활동을 하며, 국가의 관리와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공식적 조직 외에도 이산1세대는 각종 향우회 성격의 비공식적 모임을 결성하여 실향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왔다. 실향민들은 고향을 상실했다는 공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응집하면서, 서로 경제적 도움 및 심리정서적 지지를 주고 받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산1세대가 결속할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자신들의 응집력을 과시하였다.

면접자: 다들 이렇게 모이는 원동력이 뭐가요?

# 13: 고향이지. 그리운 고향 때문에 모이지. 고향은 어머니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 고향이 제일 좋은 거지. 고향은 자기가 나온 곳이고, 그 고향에 가고 싶지 않은 놈이 어디 있어? 우리는 고향이 그리워도 못가는 신세 아냐? 너무 속상하지.

여기 살면서도 고향사람 외에는 별로 접촉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야. 실향민들이 뭐 있겠냐고 하지? 천만에 말씀이야. 실향민들의 모임이 워낙 많아요. 오로지 고향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어떤 때는 착각할 적이 있어. 고향 속에 사는 것처럼. (# 01)

물론 실향민들의 정착과정에는 남한 사회의 지원도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내용도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언급되었다. 이산1세대 연구참여자들은 전쟁, 피난, 남한 정착의 어려움을 회고했지만, “피난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과거에 고생했던 거는 좋은 추억으로 넘어가야지(# 06)”라는 태도를 보였다. 남한 정착시 “삼팔따라지”라는 편견도 인식했지만, 남한지역의 토착민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 등이 이들의 부정적 기억을 희석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북에서 나온 피난민들을 비하해서 삼팔따라지라고 했지. 피해의식은 느끼지...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집결했는데, 이북에서 맨 몸으로 나왔으니까 사는 게 어려웠고, 고생도 많이 하고, 또 부산사람들한테 폐도 많이 끼쳤지. 그래도 부산사람들이 피난민들을 많이 도왔지. 먹을 것도 주고, 집도 그냥 방 한 칸이라도 내주고, 그런 걸 볼 적에 “역시 한 민족이구나”하고 감격스러워서 눈물도 났지. (# 12)

2) 분단장기화로 인한 이산1세대의 고령화

이산1세대는 전쟁 직후 남하하면서 피난이 단기간에 종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남북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이산1세대에게는 “며칠 나갔다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던, 그 며칠이 반세기(# 01)”가 되어버린다. 이산1세대는 서로의 노화와 사망을 목격하면서 초조함을 느끼고, 생전에 귀향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을 토로했다.

결국 1세대는 고향도 못가보고 끝났어. 1세대에게 통일은 없는 거라고 봐요. 몇 년 있으면 다 갈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리다 언제 갈지 모르는데, 그래서 조바심이 나는 거야... 소원이 뭐 있겠소? 죽기 전에 고향이나 한번 밟고 죽었으면 좋을 건데, 이제 다 틀렸지. 그게 한이지. (# 07)

이산1세대는 자신들이 통일을 목격할 가능성에 부정적이었으나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한다. 연구참여자들에게도 통일에 대한 실망감과 귀향에 대한 희망이 양가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났다.

여기[이산가족 모임]서야 우리가 단합해서 통일의 길로 나가자고 하지. 그런데 여기 나오면 뭘 해? 이제 60년 동안 속아 가지고, 통일되기는 글렀고... 그래도 “통일이라는 건 내일이라도 될 수 있으니 어떻게든지 통일이 될 날까지 살아야 된다. 고향 가는 걸 바라고 살아야 된다”고 하지. 그렇게 말은 하는데, 하도 속아서... (# 03)

분단이 장기화 되면서 이산1세대의 노화와 사망이 증가하고, 이는 실향민 사회에 변화를 유발한다. 이산1세대는 여전히 고향에 대한 강한 그리움을 갖고 있으며 상호결속을 중요시하지만, 노화로 인해 “고향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지쳤어요. 1세대들이 지쳤어요. 곧장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50년, 60년씩 걸릴 줄 누가 알았어? 우리가 몸이 쇠약해져서 이제 그전처럼 모이지를 못해요. 고향을 잊어서가 아니야. 누가 이렇게 오래갈 줄 알았나? (# 04)

3)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좌절

이산1세대들이 실향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하며 살아가는데 핵심이 되는 것이 이북에 있는 이산가족들이다. 대한적십자사가 1971년에 “이산가족찾기운동”을 제창하고, 1985년 최초로 남북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지면서 이산1세대들은 대부분 희망을 가지고 상봉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상봉 기회 자체가 극히 제한되면서 이들의 실망감도 커진다. 이북의 가

족이 “진빨갱이가 돼야 만나게 해주기 때문에(# 10)” 상봉의 기대를 접기도 하고, 이북을 떠나 남한 체제를 선택한 가족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북에 있는 친척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까봐(# 14)” 걱정돼서 신청을 철회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일회적 만남으로 가족관계를 복원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상봉을 회피하기도 하였다. 즉, 지속적인 교류나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단발성의 상봉은 무의미하며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인식이 상봉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상봉신청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다했지. 그러다 통일부 장관의 서신이 와서 갈 수 있게 됐어. 그때 생각해보니까 만나도 데리고 올 수도 없고, 내가 가서 살 수도 없잖아. 만나봤잖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거기 있는 사람만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생각하고 만나러 가지 않았지. (# 13)

특히 남북 당국 간 공식적 교류를 통해 이북의 가족들을 만난 실향민들의 조언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기대를 감소시키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상봉을 실현한 실향민들이 이북 가족들의 공산이념화에 실망하고, 이들의 경제적 요구에 부담을 느낀다고 토로하였다. 이산가족들은 상반된 정치체제 속에 장기화된 분단으로 가족으로서의 심리적 복원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화상 통화하는 면회를 신청했어요. 근데 내 친구가 그쪽 사람들이 “공산주의 좋다”는 얘기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못하게 해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신청을 안했어. (# 09)

[이산가족을] 만난 사람들은 다 후회를 해요. 그렇게 보고 싶던 가족인데, 북한사람들이 남한사람들을 돈으로 보는 거야. 화물장수 할 수 있게 화물차 사달라고 하고, 돈 보내달라고 하고... 돈은 없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속이 아프잖아요. 병나지. 그래서 안 만난 것만 못하다고 우스갯소리를 해요. (# 06)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이북 가족들의 공산이념화나 경제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재결합에 의미를 두고 강한 혈연적 애착을 표시한 이산1세대들도 있었다. 특히 이북에 직계가족원이 있는 경우, 불법적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상봉을 시도하거나 경제적 도움을 주거나 북한 이탈을 희망하는 간절함을 드러냈다.

적십자에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해서 이북의 딸을

만났지. 금강산 호텔에 갔는데, 내가 딱 보니까 우리 딸이야. 얼마나 말랐는지 껌데기뿐이야. 난 그냥 눈물이 줄줄줄 흘러가지고 말을 못하겠는데, 우리 딸은 눈물을 하나도 안 흘려. 우리 딸이 거기서 아주 무서운 빨갱이예요. 김정일 장군이 어찌고 미군 내쫓아야 되고, 공산주의를 굉장히 혼련받았어. 내가 타박을 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짝 얘기를 하고, 비쩍 마른 애를 껴안으니까 그때 처음 눈물을 흘리더라고... 나는 바짝 마른 딸을 보니 울분이 나지. 먹지 못하는 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어? 면회 끝내고 돌아와서 개를 풀어내려고 중국에 3번이나 갔는데, 돈만 없애고 다 실패했어. 개를 살려야 되는데, 먹여 살려야 되는데... (# 04)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는데 안됐어. 결국 브로커들한테 돈 쥐가지고 동생을 중국으로 끌어내서 만났어. 완전 기아상태더군. 참 눈물 나는 거요. 이북 실정도 듣고, 가족들 실정도 듣고, 뭔가 보태줘야겠어서 2천불 췌어. 나 지금 걱정되는 게 그거야. 돈 쓰다가 걸리지 않았는지... 다녀와서 당분간 기분이 안 좋지. 그래도 내가 남한에 나와 동생한테 그 돈이라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자위하는 거지. 헤어질 때 “2-3일 안에 통일이 될 수도 있으니 살아야한다. 그래야 나하고 만날 거 아니냐”고 그랬어. (# 03)

#### 4) 실향민 응집력의 약화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난 이산1세대는 실향민들 간의 결속을 바탕으로 남한에 성공적으로 정착한다. 하지만 실향민들의 응집력은 시간 경과와 함께 약화되는데, 특히 실향민 사회 내의 성차와 세대차는 이들의 결속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 (1) 성차

한국의 가족제도는 아직까지 부계혈연의식이 강하고 부계친족집단이 공고한 결합력을 가진다(이창기, 2010). 실향민 공동체 역시 부계중심의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이북의 고향이 어디인지를 중심으로 도민회와 군민회 등이 활성화되었는데, 이는 종족촌락을 기반으로 한 부계친족집단의 조직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운영 측면에서도 실향민 공동체는 가부장적 가족관을 고수하며, 부창부수 및 출가외인의 규범을 강조하였다. 예로서, “이북남자와 결혼한 이남여자”는 실향민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이북여자가 여기[이남] 남편을 만나면” 실향민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 또한 실향민들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계가 우선시된다. 이러한 관행은 성에 따라 실향민으로서의

소속감에 차이를 유발하며, 결국 실향민 공동체의 응집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실향민 모임]의 제도가 그렇게 됐어. 애들[이산 2세대]에게 장학금을 줘도 부계, 모계를 따져서 모계는 장학금을 안주더라고. 부계만 장학금을 주더라고. (# 14)

삼촌진머덕이 있잖아. 처음 친정에서 살 때는 부모님을 위해서, 출가를 하면 시댁과 남편을 위해서, 늙으면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거지. 그래서 여기 부녀회는 이북 오리지널이 아니더라도, 전라도든 경상도든 황해도 남편을 위해서 봉사하면 이질적으로 보지 않고 같은 고향사람으로 쳐주는 거야. 시집을 가면 할 수 없이 남편을 따라가게 되잖아? (# 13)

## (2) 세대차

실향민 사회의 응집력은 세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산1세대는 동향(同鄕) 출신들끼리 모여 추억을 나누고, 귀향에 대한 기대를 공유하면서 결속을 다져왔다. 그러나 이산2세대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공통의 경험이 제한적이며, “고향사업”에 참여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산1세대는 2세대를 육성할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이동풍인 우리 아이들한테 고향 애기나 많이 하려고(# 01)” 노력할 뿐이다. 문제는 이산1세대와 2세대가 단순히 연령에 따른 세대차를 보이는데 그치지 않고, 이산과 실향을 겪은 1세대의 경험이 상실된다는 역사성의 단절에 있다. 이산1세대는 “고향의식”이 투철한 2세대를 육성하지 못한 점을 후회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음을 받아들인다. 이로 인해, 이산1세대는 실향민 사회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았는데, “실향민들은 사라져가는 공룡이고 명맥이나 이어가다가 잊힐 것(# 11)”으로 예상하며 자괴감을 표현했다.

우리 실향민들이 잘못된 것이 2세 교육을 잘못시켰다는 거야. 20-30년 동안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거기 매달려가지고, 소위 정체성 교육을 못 시킨 거지. 자식들한테 고향에 대한 교육을 못시킨 것은 사실이에요. (# 02)

회의할 때마다 [군민]회장님 얘기가 “무조건 2세를 데리고 나와라”는 거지요. 각 군에 2세들 청년회가 다 있는데, 지금은 안 나와. 우리 애들도 한번 나와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거든. 혼자 구석에 있다가 그 뒤에 절대 안 나와. 이게 자기 돈 쓰면서 하는 애향사업 아니요? 할 수가 없어. 우리 1세대가 거의 80대인데, 우리 죽으면 다 끝이야. 2세들 안 나오고, 3세대는 물론 더 안 나오고.

[실향민 사회는] 앞으로 10년을 못갈 거야. (# 07)

## 3. 귀향의 재개념화

실향이 초래한 복합적 상실은 귀향의 개념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들이 말하는 귀향이란 단순히 장소적 재방문이 아니라 가족원과의 재상봉, 조상에 대한 제례 의무의 수행, 기존 사회경제적 지위로의 복귀, 심리적 지지체계의 재구축, 유년기로의 회귀 등 전쟁이라는 거시체계의 사건으로 불가피하게 왜곡된 개인사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이에 이산1세대는 통일에 대한 강한 열망을 지니며, 귀향할 수 있을 때까지 생존해야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북한의 이념적 차이가 첨예해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좌절감을 느낀다.

결론을 말하면 “통일은 없다!” 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대화가 안 됩니다.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버리지 않는 한 절대 평화적인 대화로 안 됩니다. 어느 한쪽이 붕괴되면 흡수통일은 가능해. 그 다음에 무력통일 외에는 없어. 절대 평화통일은 없는 거야. 그건 하나의 환상이야. 환상 속에서 저 산 너머 오아시스가 있어서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치인들이 이것을 이용해왔지. 나는 허탈감을 느끼고 “이건 안 되는 일이었구나”하고 생각해. (# 08)

이산1세대는 혈연에 기반을 둔 가족정체성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분단 현실을 직시하면서 귀향에 대한 기대를 조정하기 시작한다. “평화적 통일 후 다시 돌아가 고향에 사는 것”이던 소망은 점차 단순 고향방문으로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고향에 두고 온 재산이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복원이 어렵고, 노화로 인해 이북 가족들의 생존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은 이산1세대의 귀향 개념에 영향을 준다. 이산1세대에게도 고향은 더 이상 구체적 실존의 장소가 되지 못하며 감상적 대상으로 변질된다.

빨리 통일이 됐으면 하지만 이제는 다 돌아가셔서 만날 사람도 없고... 통일이 되면 가는 봐야죠. 그렇지만 거기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고향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고 싶을 따름이지. 지금 가면 또 뭐하겠어요? 다 변하고... 내가 여기서 자리 잡고 사는데, 거기 가서 살 수 있겠어요? 그 놈들이 내 땅, 내 땅 없이 다 그냥 합해놨는데 막연한 거지. (# 10)



## V. 논 의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을 통하여 이산가족 공동체가 겪은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경험이 이산가족의 실향 및 귀향 개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며, 앞으로 이산가족 사회의 변화는 어떠할지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산가족1세대는 스스로를 가족원과의 이별을 포함해 다양한 상실을 경험한 실향민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산1세대는 이북의 고향을 떠나 남한에 정착하기 위해 강한 결속력을 보이며 실향민 사회를 구축한다. 그러나 분단장기화로 인한 이산1세대의 고령화,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좌절, 실향민 사회 내 다양성의 증가 등으로 실향민 공동체의 응집력은 약화된다. 이산1세대는 스스로를 화석화된 공동으로 인식하며, 남한 내 실향민 사회가 쇠퇴(衰微)할 것을 예견했다. 특히 장기간의 남북 간 대립을 목격하면서 평화통일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회의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산1세대의 귀향에 대한 기대도 수정되는데, 이들에게 고향은 더 이상 현실적인 장소가 아니며 추억의 대상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을 이산가족 대신 실향민이라는 보다 포괄적 용어로 규정할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남북 분단으로 가족원과 강제적인 단절을 하게 된 것이 실향민들의 가장 비극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은 그 외에도 다양한 상실을 겪었다. 고향은 혈연을 바탕으로 한 친인척 체계, 선영(先塋)을 중심으로 한 조상과의 종적인 연계, 안정된 사회경제적 지위, 심리적 지지기반, 행복했던 유년기 등을 다변하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개인적 이유가 아닌 전쟁이라는 거시적 사건으로 박탈당했음을 토로했고, 이러한 의미로 실향민이라는 정체성을 구축했다. 이에 기존 선행연구들이 가족원과의 단절에만 초점을 두면서 실향민들의 복합적 상실 경험을 간과한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이산1세대는 월남 후 남한에 정착하기 위해 실향민들 간의 결속을 강화한다. 이는 월남인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지원망을 바탕으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선행연구들(김성은, 1995; 이성희·김태현, 1993)과 일치하는 점이다. 실향민들은 서로간의 경제적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정서적 공동체로서 단합한다. 그러나 분단의 장기화는 이산1세대의 노화와 사망을 야기하였다. 이산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지닌 당사자들이 감소하면서 실향민들의 응집력도 약화되고 있다. “이산가족의 문제는 시간문제”라는 자조 섞인 반응은 실향민 공동체의 위기감을 반영한다. 특히 이산2세대에게 실향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축시키지 못한 반성이 이산1세대가 절감하는 중심주체로 대두되었다. 한편, 이산가

족들의 결속을 약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본 연구는 실향민 사회 내부의 성차별을 지적하였다. 부계를 중심으로 한 실향민 공동체의 운영은 이산1세대 여성을 소외시키며, 이산2세대 여성의 참여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산가족 공동체의 확장을 위해서는 양성평등 가치관을 기반으로 이산1세대 및 2세대 여성에 대한 적극적 수용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산1세대의 귀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 핵심 경험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들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북의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강하게 드러냈으며, 혈연에 기반을 둔 가족관계의 복원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은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좌절로 점차 퇴색된다.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기회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며, 상반된 이념을 가진 가족원과의 정서적 재결합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김달순, 2006; 송상범, 2004; 엄명용, 2000)에서 지적한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점과 유사한 것이다.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정치적 이벤트로 전락하지 않고, 이산가족의 정서적 유대를 통해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도주의적 접근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산을 미시적 차원의 가족 경험으로 조명하여, 거시적 차원의 접근이 간과한 실향민들의 일상적 목소리를 학계에 전달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를 이산1세대로 한정함으로써 실향 경험에 대한 이산2세대의 관점을 포착하지는 않았으며, 성별에 따라 이산1세대의 실향 경험에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엄격한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이에, 추후 연구는 이산2세대에 주목하여 이들이 이산1세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산가족으로서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며, 이산경험의 세대간 변화는 어떠한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가부장적 가치관을 지닌 이산1세대가 성별에 따라 어떤 차별적 실향 경험을 했는지 고찰하는 것도 후속 연구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이산가족, 남북관계, 통일 관련 정책결정자와 행정담당자들을 위한 정책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산가족의 문제가 이산1세대의 사망으로 해결되는 것인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이산2세대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세대가 바뀔 때 따라 이산가족이 민족화합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에 대한 시사점을 줌으로써 이산가족을 위한 정책에 현실적 조언을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이산1세대 뿐 아니라 이산2세대와 3세대를 포괄하여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이산가족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하며,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이산가족 공동체가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을 제도화시키는 등의 시도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산1세대를 위한 정서적 지원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이산가족 유관기관이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산2세대에게는 이산1세대의 관점을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이산2세대로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내용, 북한가족과의 상봉 및 통일 후 가족관계에 대한 내용 등을 포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내용은 단순히 세대차를 극복하는 시도를 넘어서서 이산과 실향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실존적 전수를 가능하게 하며, 통일 후 야기될 가족의 복원을 예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남북이산가족은 정치적, 역사적, 경제적 분단이라는 거시체계의 사건이 혈육이라는 미시체계적 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야기된 비극이다. 본 연구가 도출한 미시적 연구결과가 궁극적으로는 거시적 정책의 긍정적 변화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참 고 문 헌】

- 김귀옥(1999).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밑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달순(2006). 남북이산가족 상봉의 문제점과 대북자세. **북한**, 413, 77-82.
- 김명혜(1988). 분단을 직접 경험한 가족연구: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성은(1995). 북한출신 월남인들의 경제적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가정학과 석사학위논문.
- 대한적십자사(1976). 이산가족백서.
- 대한적십자사(1977). 이산가족백서.
- 대한적십자사(1986). 이산가족백서.
- 대한적십자사(2005). 이산가족찾기 60년.
- 소재선(2001). 남북이산가족의 상봉(1-3차)에 따른 가족법상의 제문제. **가족법연구**, 15(2), 125-160.
- 송상범(2004).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의 효율화 방안 연구. 대전대학교 통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경림 · 조명옥 · 양진향(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신율(2001).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정책의 중간평가와 그 정례화를 대비한 개선방안의 실증적 연구. **국제정치논총**, 41(2), 45-71.
- 엄명용(2000). 남북한 이산가족의 상봉(결합)과 사회사업 과제에 탐색. **사회과학**, 39(2), 243-268.
- 이성희 · 김태현(1993). 월남이산가족의 가족주의와 사회적 지원망. **대한가정학회지**, 31(4), 95-113.
- 이은정(2001). 남북교류에 따른 가족법 대응방안. **가족법연구**, 15(2), 161-194.
- 이창기(2010). 성리학의 도입과 한국가족제도의 변화: 종법제도의 정착과 부계혈연집단의 조직화 과정. **민족문화논총**, 46, 105-137.
- 정현숙 · 유계숙(2001). **가족관계**. 서울: 학지사.
- 조미경(2002). 이산가족 증혼문제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16(2), 77-114.
- 최대석(1999). 김대중 정부의 이산가족 정책: 평가 및 정책제안. **북한연구학회보**, 3(2), 171-186.
- 최연실(2007). 남북이산가족의 적용에 관한 질적 고찰: 남한 거주 이산가족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1), 183-207.
- 통계청(2006). 2005 인구주택총조사.
- 통일부훈령 제334호(2003). 이산1세대 등에 대한 북한방문 증명서 발급절차에 관한 지침. 통일부.
- Creswell, J. H.(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Thousand Oak, CA: Sage.
- Morse, J. M.(2006). Diagramming qualitative theorie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6(9), 1163-1164.
- Padgett, D. K.(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Thousand Oaks, CA: Sage.
- Van Manen, M.(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N.Y., N.Y.: State University of N.Y. Press.

- 접수일 : 2011년 01월 14일  
 심사일 : 2011년 02월 06일  
 심사완료일 : 2011년 04월 20일